

##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우현아(중앙대학교)\*

이희수(중앙대학교)†

###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각 지지 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생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모든 지지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유형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네 가지 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지 유형별 타당도와 신뢰도, 상관관계, 영향관계 및 구조적 관계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의의는 향후 대학생의 진로·취업 고취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대학생,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loveis1096@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heesu@cau.ac.kr

논문투고: 2020.11.23. / 심사일자: 2020.12.31. / 게재확정일자: 2020.12.31.

## I. 서론

대학생에게 대학으로부터 직장으로의 전환은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Body, Bonnal, & Giret, 2014), 이 시기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진로를 탐색하며 구체화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발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박연옥, 박수진, 허정, 2017). 미래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나가는 과정은 이후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김은선, 이희수, 2018).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직업 세계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에 있는 대학생에게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삶에서의 주요한 과업이다(홍아정, 황은희, 조윤성, 김용주, 최미옥, 2017). 진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할 경우, 취업 실패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이후 경력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 생애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김은애, 진성미, 2015).

대학생은 진로와 관련해서 현재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난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합리적 진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김종운, 박성실, 2013).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2018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교 입학 후 졸업까지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은 평균 4.8년, 남학생은 6.2년으로 평균 5.4년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문제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이 늘었으며 졸업예정자 10명 중 4명은 졸업 시기가 앞으로 더 늦춰질 것으로 답했다(잡코리아, 2018). 특히 2019년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5명 중 1명은 다음 학기 휴학을 계획하며, 그 이유로 진로 모색(34.4%), 직무 경험(31.9%), 취업 준비(28%) 등으로 제시했다(잡코리아, 2019).

이처럼 많은 대학생이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현편이다(고경필, 고정리, 2018).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진로 경로 및 진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정윤경, 2019), 급변하고 가변적인 직업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시기가 도래함으로 미래를 위해 누구나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 세계로의 입문을 준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발달을 위한 실천적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 필요하다(허강석, 2017).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꿈을 이루고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정유선, 박미연, 2017).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진로와 관련된 인식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리적 독립(양진희, 김봉환, 2008; 이주연, 민윤희, 장성화, 2019), 전공만족도 (박지연, 조경덕, 2019; 서보람, 이기성, 2018), 적응 유연성(김봉환, 2010; 이순희, 2017), 진로장벽(강현희, 2015; 김민정, 2016), 자아정체성(김영화, 김계현, 2011; 조명실, 최경숙, 2007), 사회적 지지(김경하, 2018; 정대인, 홍아정, 2015;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셀프리더십(김효선, 2019; 황완희, 윤천성, 2014)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진로와 취업의 스펙트럼이 전환되는 시기에 놓여있는 대학생은 진로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진로 및 취업의 선택보다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Speich, 1987; Hackett & Betz, 1981).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필수적이다.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면 진로선택을 더 잘 준비한다는 선행 연구(나태균, 문성원, 2012; 이미옥, 유성용, 2018; 박신영, 2017)는 안정된 지지를 받는 개인이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키고, 환경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적응능력을 발달시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금지현, 2012; 민소라, 홍성훈, 2019; Xia, Gu, Huang, Zhu, & Cheng, 2020)에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이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의 기저인 자기효능감(Bandura, 1986)에서 비롯된 개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이 주목을 받는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따른 신념이나 유능감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변인이 진로발달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진로선택과 진로행동 및 진로발달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2). Jeon(2019)은 자기효능감이 타고난 것이 아니며 성취 경험, 성공을

위한 모방학습(imitation learning), 언어적 신념(verbal persuasion)과 격려를 통해 얻어지므로, 학생들이 성취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직업 훈련 및 진로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고취시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변인 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지지 유형을 나누지 않고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경하, 2018;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한주원, 2013).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지지 유형별로 나누어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지지 유형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의 각 유형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차원의 지지는 가족, 친구, 동료, 전문가 등 타인이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얻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보살핌과 사랑, 존경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통해 삶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로운 영향을 완충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Cobb, 1976).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타인의 도움과 격려 등 사회적 상호관계를 사회적 지지로 개념화하기도 한다(Dong & Simon, 2010). 이처럼 타인에게서 비롯된 지지와 격려는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 영향력이 있다(Hui, Yuen, & Chen, 2018).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진로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적, 물적 자원을 일컫는다(Betz, 1989).

사회적 지지는 내용과 형태의 관점에서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하여 개념화하는 방법이 존재한다(황범철, 허진영, 임현목, 2010).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객관적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며, 기능적 측면은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다(House, 1987).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의 척도가 구조적 측면의 속성(접촉빈도, 밀도, 안정성, 동질성)과 기능적 측면의 속성(지지 출처, 지지형태, 만족도)을 모두 포함하여 상황 중심의 실제적 지지에 대한 척도를 개념적 기틀로 마련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한 척도로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에 일반적으로 활용된다(박선아, 정효미, 차명화, 2018; 오옥선, 2017; 이진령, 윤소정, 강승희, 2018). 정서적 지지는 문제 대처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및 경청 등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고 또는 조언 등을 의미한다. 물질적 지지는 돈이나 물질 등을 통해 직접 도움을 뜻한다. 평가적 지지는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와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이론을 응용하여 진로와 직업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진로선택과 진로행동에 관련되는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한다(Hackett & Betz, 1981). Hackett과 Betz(1981)은 진로선택, 진로선택의 범위, 성취 행동, 진로결정, 진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 efficacy)을 개념화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다(이은경, 이해성, 200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며(Hackett & Betz, 1981; Speich, 1987), 진로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

에 중요한 역할을 이행한다(Lent & Hackett, 1987).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희망하는 진로목표에 대한 과제의 이행, 관련된 정보수집,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진로 활동이 촉진되고, 향상되는 것을 뜻한다(한주원, 20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 목표에 대해 예상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고 행동하도록 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서 장애물을 낮게 지각한다(김민정, 박소영, 2017).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Fetherston, Cherney, & Bunton, 2018).

##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해 합리적이며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로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진로준비 과정과 행동을 의미한다(Phillips, Pazienna, & Walsh, 1984). 이는 미래 진로에 대한 자각과 이해 증진을 의미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Noviati & Nu'man, 2020).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되며, 진로설계와 취업 준비 정도를 개인적 행동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한다(이종찬, 홍아정, 2013).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관련 연구에서 행동적 측면이 강조되어 등장하였으며(김희진, 2001),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넘어 올바르게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진로 결정을 위해 인지적, 태도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은 실천적 행동 차원을 촉진하고 향상시킨다(정기수, 하정희, 2018).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한 이후 실행하거나 몰입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결정하거나 대안 중 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대안을 좁혀나가는 행동을 포함한다(김봉환, 1997).

## 4. 연구변인 간 관계

진로와 관련된 행동은 사회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진로발

달은 자신이 처한 환경적 장벽과 사회적 지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Swanson, Daniels, & Tokar, 1996).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긍정적 형태의 도움과 지원을 의미한다(이현림, 송재영, 2004). 주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성장 후 독립심과 책임감, 도전정신 및 리더십 등이 높아지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ler, 1980). 사회적 지지의 지각 정도는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며(Chope, 2001), 진로준비행동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 자원을 뜻한다(Betz, 1989; Cobb, 1976).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며,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진로와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을규, 이호연, 김대영, 2017). 대학생은 가족과 친구, 교수 등 의미 있는 주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설정하여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화연, 이형룡, 2012; 서보람, 이기성, 2018; 송민혜, 최윤철, 2017; 오민경, 외 4인, 2017; 이승익, 이무형, 2018).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 간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각 변인의 하위요인 중 일부에서만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장현지와 홍아정(201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정보수집행동에만 유의한 예측을 하였으며, 성찰학습을 매개로 하여 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전공 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자존감 지지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석혜정, 이종숙, 2016). 주영주, 고경이와 정유진(2015)의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와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결과기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긍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및 결과기대는 진로만족에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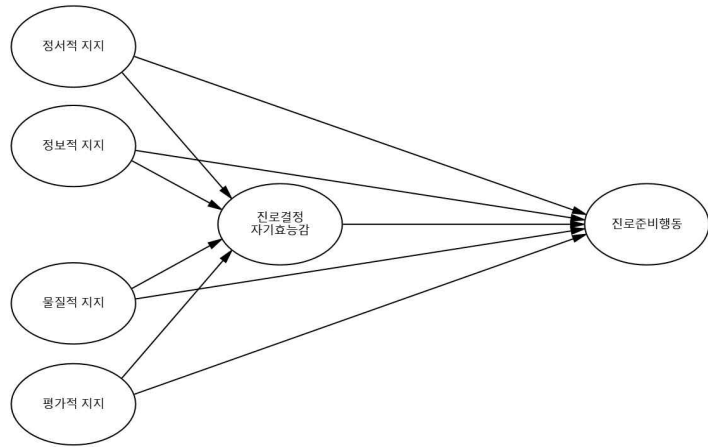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진로에 대한 인지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동기가 된다(최유진, 손은정, 20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개인의 인지적 태도의 변화는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일부만이 정적 영향 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으며,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네 가지의 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영향관계가 어떠한지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하위요인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상 변인 간 관계를 기반으로 설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표본 추출방법으로 비확률 표집 기법 중 편의 표집 유형을 채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46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 중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133명(28.8%), 여성은 329명(71.2%)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대학 소재지에서는 서울 262명(56.7%), 경기 100명(21.6%), 강원 49명(10.6%), 충청 25명(5.4%), 경상 23명(5.0%), 제주 2명(0.4%), 전라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4학년이 162명(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117명(25.3%), 1학년 95명(20.6%), 2학년(19.0%) 순으로 분포하였다. 전공은 인문계열이 202명(4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회계열 144명(31.2%), 공학계열 48명(10.4%), 자연계열 42명(9.1%), 예체능계열 26명(5.6%) 순으로 확인되었다.

## 3.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달성과 각 변인 간 관계 검증을 위해 신뢰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종속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성별, 대학 소재지, 학년, 전공 분야를 측정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변인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구성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 가. 사회적 지지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측정을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재구성한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7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6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종합 Cronbach  $\alpha$ 계수는 .96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각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의 종합 Cronbach  $\alpha$ 계수는 정서적 지지 .90, 정보적 지지 .90, 물질적 지지 .81, 평가적 지지 .88로 모든 하위요인이 판단기준 .5 이상에 부합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 측정을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에 대해, 이은진(2002)이 번안하고, 이종찬(2013)이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자기평가(5문항), 직업정보수집(5문항), 목표설정(5문항), 진로계획(5문항), 문제해결(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이종찬(2013)의 선행연구에서 종합 Cronbach  $\alpha$ 계수는 .82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90으로 판단기준 .5 이상에 부합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진로준비행동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 측정을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이명숙(2003)은 인터넷 기반 진로정보 습득과 대학 내 진로상담

센터가 활성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측정도구를 수정하였고, 이를 고태용(2008)은 탐색행동(12문항)과 준비행동(5문항)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고태용(2008)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종합 Cronbach  $\alpha$  계수는 .91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89로 판단기준 .5 이상에 부합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자료 분석방법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SPSS. 23.0과 AMOS 23.0 구조방정식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으로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다차원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행하였다. 넷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이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유형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왜도와 첨도는 측정변인의 정규성 검증에 활용되는 지표로 왜도는 절댓값 3 이하와 첨도는 절댓값 10 이하일 경우 정규분포를 보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Kline, 2005).

<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잠재변인	관찰변인	평균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정서적 지지	정서적 지지1	4.03	.827	-.827	.902
	정서적 지지2	4.23	.798	-1.10	1.55
	정서적 지지3	4.12	.796	-.786	.785
	정서적 지지4	4.03	.886	-.916	.689
	정서적 지지5	4.06	.836	-.799	.618
	정서적 지지6	4.05	.815	-.866	.980
	정서적 지지7	3.81	.915	-.787	.654
	전체	4.05	.839	-.869	.883
정보적 지지	정보적 지지1	4.04	.862	-.827	.725
	정보적 지지2	3.90	.811	-.648	.565
	정보적 지지3	3.92	.804	-.615	.539
	정보적 지지4	3.97	.835	-.773	.752
	정보적 지지5	4.07	.758	-.931	1.86
	정보적 지지6	3.81	.729	-.625	.997
	전체	3.97	.805	-.755	.903
물질적 지지	물질적 지지1	4.17	.780	-.992	1.50
	물질적 지지2	3.69	.896	-.397	-1.32
	물질적 지지3	3.91	.867	-.687	.465
	물질적 지지4	4.06	.826	-.833	.787
	물질적 지지5	4.04	.848	-.705	.313
	물질적 지지6	3.35	.980	-.222	-.421
	전체	3.88	.857	-.656	.488
평가적 지지	평가적 지지1	3.74	.785	-.483	.268
	평가적 지지2	4.12	.812	-.986	1.38
	평가적 지지3	3.93	.847	-.560	.231
	평가적 지지4	3.99	.871	-.746	.603
	평가적 지지5	4.22	.797	-1.10	1.62
	평가적 지지6	4.09	.727	-.750	1.48
	전체	4.00	.814	-.756	.86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3.65	.630	-.216	.355
	정보수집	3.59	.687	-.175	-1.38
	목표설정	3.60	.697	-.259	.261
	진로계획	3.45	.739	-.097	-.091
	문제해결	3.64	.649	-.187	.738
	전체	3.72	.707	-.349	.496
진로준비행동	탐색행동	3.16	.747	.028	-.114
	준비행동	3.19	1.00	-.218	-.530
	전체	3.48	.748	-.180	.089

이 연구에서 측정된 연구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해당 범주에 분포하여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연구변인 간 통계적 관련성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지지 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각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다음의 결과를 통해 연구변인 간 모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77**	.449**	.387**	.420**	1	
진로준비 행동	.186**	.240**	.222**	.234**	.581**	1

\*\* $p < .01$

### 3.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종속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은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유형으로 나누어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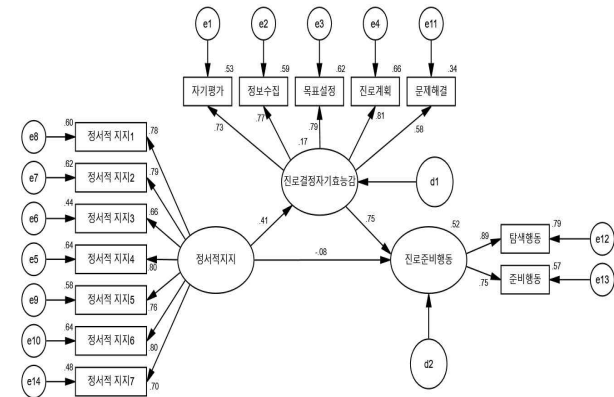
#### 가.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 구조적 관계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 구조모형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도출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용 조건에 충족하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의 구조모형 모형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df)$	$p$	SRMR	RMSEA	TLI	CFI
기준값	-	$p < .001$	.08 이하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측정값	222.919(74)	.000	.051	.066	.945	.955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인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와 <표 4>와 같다.



[그림 2]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의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정서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412, t = 7.390$ ). 대학생이 지각한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정서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beta = -.083, t = -1.71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48, t = 12.296$ ).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정서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의 영향관계 검증결과

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C.R
정서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98	.412	.040	7.390***
정서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86	-.083	.050	-1.7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1.079	.748	.088	12.296***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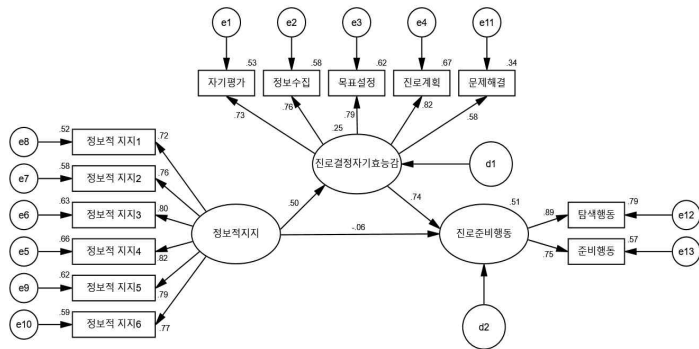
**나.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 구조적 관계**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 구조모형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출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용 조건에 충족하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의 구조모형 모형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df)$	$p$	SRMR	RMSEA	TLI	CFI
기준값	-	$p < .001$	.08 이하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측정값	160.029(62)	.000	.041	.059	.961	.969

다음으로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인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3]과 <표 6>과 같다.



[그림 3]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의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정보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501, t = 9.032$ ). 대학생이 지각한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정보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58, t = -1.11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43, t = 11.677$ ).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정보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의 영향관계 검증결과

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C.R
정보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10	.501	.045	9.032***
정보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68	-.058	.061	-1.1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1.076	.743	.092	11.677***

\* $p < .05$ , \*\* $p < .01$ , \*\*\* $p < .001$

**다.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 구조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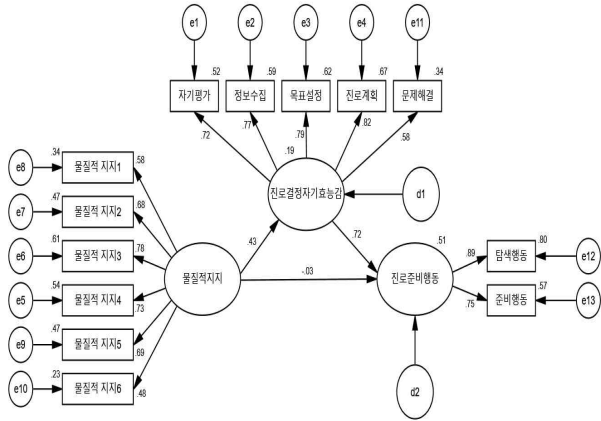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 구조모형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도출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용 조건에 충족하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의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df)$	$p$	SRMR	RMSEA	TLI	CFI
기준값	-	$p < .001$	.08 이하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측정값	159.777(62)	.000	.043	.058	.949	.960



다음으로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인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와 <표 8>과 같다.



[그림 4]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의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물질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434, t = 6.449$ ). 대학생이 지각한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물질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beta = -.025, t = -.49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057, t = 11.843$ ).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물질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물질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의 영향관계 검증결과

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C.R
물질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23	.434	.066	6.449***
물질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36	-.025	.072	-.49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1.057	.725	.089	11.843***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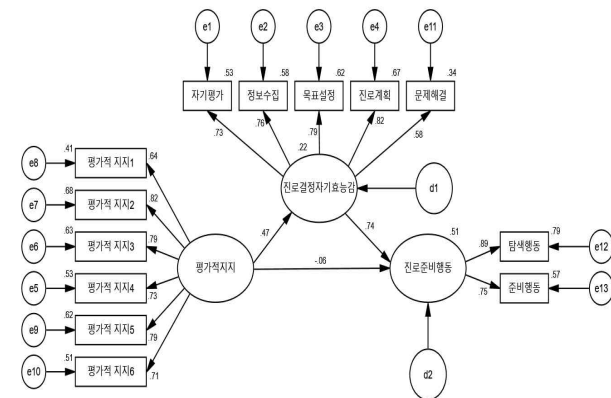
라.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 구조적 관계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 구조모형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도출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용 조건에 충족하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9>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의 구조모형 모형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df)$	$p$	SRMR	RMSEA	TLI	CFI
기준값	-	$p < .001$	.08 이하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측정값	164.657(62)	.000	.046	.060	.956	.965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인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5]와 <표 10>과 같다.



[그림 5]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의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465, t = 8.210$ ). 대학생이 지각한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평가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58, t = -1.143$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41, t = 11.899$ ).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가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평가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의 영향관계 검증결과

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C.R
평가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13	.465	.050	8.210***
평가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74	-.058	.065	-1.1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1.071	.741	.090	11.899***

\* $p < .05$ , \*\* $p < .01$ , \*\*\* $p < .001$

####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 연구에서 매개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독립변인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측정하였다. 총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과 신뢰구간 95% 기준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직접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간접효과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간접적으로 영향관계에 있는 것이며,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의미한다.

##### 가.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 연구모형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 연구모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표준화 경로계수( $\beta$ )는 .308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가 진로준

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정서적 지지와 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정서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12***	-	.412***
정서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83	.308***	.22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748***	-	.748***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 연구모형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 연구모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정보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표준화 경로계수( $\beta$ )는 .37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보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정보적 지지와 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정보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01***	-	.501***
정보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58	.372***	.3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743***	-	.743***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 연구모형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 연구모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물질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표준화 경로계수( $\beta$ )는 .31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지

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물질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물질적 지지와 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물질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34***	-	.434***
물질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25	.315***	.28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725***	-	.725***

\* $p < .05$ , \*\* $p < .01$ , \*\*\* $p < .001$

**라.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 연구모형**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 연구모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평가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표준화 경로계수( $\beta$ )는 .34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가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평가적 지지와 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평가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5***	-	.465***
평가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58	.345***	.28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741**	-	.741***

\* $p < .05$ , \*\* $p < .01$ , \*\*\* $p < .001$

**V.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각 유형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지지 유형이 진로준비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경하, 2018; 정대인, 홍아정, 2015;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를 뒷받침한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나타내며,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김종학, 최보영, 2015; 배을규, 이호연, 김대영, 2017)를 반증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일부 지지 유형이 진로준비행동과 영향관계를 보이는 연구결과(이승익, 이무형, 2018; Kozan, Fabio, Blustein, & Kenny, 2014)와 일부분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유형은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척도가 진로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지지 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정보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다수의 연구결과(임통일, 2014; 한민영, 오은주, 2019; 황지영, 고미나, 2015)를 지지한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목표설정과 진로에 대한 미래계획이 구체화 된다는 선행연구(배남희, 2014; 함윤정, 김용수, 2015)를 뒷받침한다. 연구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네 가지 모든 지지 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대학생은 중요한 주변인으로부터의 사랑, 애정, 존중, 위안과 같은 심리적 자원과 물질적 또는 경제적 자원을 통하여, 진로 탐색 과정에서 스스로가 진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선·후배, 교수, 상담센터 등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통

해 다양한 지지 유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으로 밝혀졌다. 네 가지 모든 사회적 지지 유형과 변인 간 구조모형 경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관계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강화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중운, 김현희, 2016; 석혜정, 이종숙, 2016; 심정호, 2016)와 일치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정미경, 2015)를 반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과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자신의 과제 이행 능력에 확신을 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강화된다면, 진로준비과정에서 적극적인 행동이 증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진로결정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 네 가지 지지 유형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사회적 지지 유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진로준비행동에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사회적 지지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염태영, 2017)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가족과 친구, 교수 등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지원받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통해 진로에 대한 합리적이며 올바른 선택과 진로목표 성취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해야 한다.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개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진로준비행동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상으로 도출된 논의 및 결론은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모든 지지 유형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관계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구에 기초하여 도출된 연구결과 및 논의를 종합하고,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표집과정에서 표집 대상에 속한 학생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표집 대상이 균등하게 표집 되지 않았기에, 연구

결과가 해당 표본의 전체를 오차 없이 대표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의 성비, 대학 소재지,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국한하여 연구를 이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지적 변인에 관련한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진로에 있어 요구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로지도, 진로상담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적으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나,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가 진로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측정도구로 대학생의 진로문제를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개발을 통해 후속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특정 대상이 아닌 주변인으로부터의 지지에 대해, 대상자가 지각한 정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대상자마다 지각하는 체계가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교수 등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으로 나누어 각 집단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결과가 실제 진학 또는 취업 연계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 종단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학 또는 취업 사이의 상관관계, 졸업 이후 첫 직장 진입까지의 소요시간, 직무에 대한 만족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후속연구 또는 실질적으로 진로에 있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 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현희 (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1), 59-78.

고경필, 고정리 (2018). 대학생이 인식한 심리적 및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439-468.

고태용 (2008).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금지현 (2012).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7), 59-66.

김경하 (2018).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399-408.

김민정 (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김민정, 박소영 (2017).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및 지각된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162-180.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봉환 (2010).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김영화, 김계현 (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지**, 19(1), 169-182.

김은선, 이희수 (2018).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8(1), 115-136.

김은애, 진성미 (2015). 대학생들이 진로탐색 과정에서 겪는 경험 : 근거이론적 접근. **직업교육연구**, 34(3), 67-90.

김중운, 김현희 (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97-814.

김중운, 박성실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김중학, 최보영 (20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43-169.

김화연, 이형룡 (201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1(2), 259-275.

김효선 (2019).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경영교육연구**, 34(1), 367-384.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성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나태균, 문성원 (2012). 외식조리 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충청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8(2), 106-117.

민소라, 홍성훈 (2019). 항공서비스학과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141-161.

박선아, 정효미, 차명화 (2018).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530-541.

박신영 (2017). 사범계열 대학생이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169-193.

박연옥, 박수진, 허정 (2017).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7(2), 103-124.

박지연, 조경덕 (2019).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2(1), 61-76.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배남희 (201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배을규, 이호연, 김대영 (2017).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5), 115-134.

서보람, 이기성 (2018).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7(1), 87-116.

석혜정, 이종숙 (2016). 뷰티 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대한미용학회지**, 12(4), 357-366.

송민혜, 최윤철 (2017). 중국인 유학생의 차별경험이 학교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3), 367-393.

심정호 (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오민경, 이서정, 박상표, 문인수, 하창순 (2017). 대학생 완벽주의, 취업불안,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정상담학연구**, 2(2), 5-26.

오옥선 (2017).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5), 107-130.

염태영 (2017).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이미옥, 유성용 (2018).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자본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취업교육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재선발을 위한 시사점. **유통경영학회지**, 21(3), 45-56.

이순희 (2017). 대학생의 심리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9), 23-44.

이승익, 이무형 (2018).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조리전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7(1), 193-213.

이은경, 이혜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이은진 (2002) 다재다능한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21-636.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이종찬, 홍아정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고용가능성에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HRD연구**, 15(3), 215-245.

이주연, 민윤희, 장성화 (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과 진로신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6(3), 21-33.

이진령, 윤소정, 강승희 (2018). 대학생의 자율성지지, 사회적 지지, 성취정서와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교육혁신연구**, 28(3), 73-91.

이현림, 송재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임통일 (2014). 진로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인 가족지지, 심리적독립,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장애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장현지, 홍아정 (201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3(2), 17-40.

정기수, 하정희 (2018).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1), 437-455.

정대인, 홍아정 (2015). 사회적 지지와 일상적 창의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3(2), 39-59.

정미경 (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85-106.

정유선, 박미연 (2017). 대학생의 자아정체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8(4), 165-183.

정윤경 (2019). 진로지원 시스템 현황과 개편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상담: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3), 65-83.
- 최유진, 손은정 (2016).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749-768.
- 한민영, 오은주 (201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7(1), 71-80.
- 한주원 (2013).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정체성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서사무경영연구**, 22(2), 117-140.
- 함윤정, 김용수 (2015).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4), 235-251.
- 황완희, 윤천성 (2014). 뷰티학과 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조절효과 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1(1), 37-58.
- 허강석 (201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아정, 황은희, 조윤성, 김용주, 최미옥 (2017). 대학생의 성찰학습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6(4), 1-21.
- 황범철, 허진영, 임현묵 (2010). 태권도전공 학생의 진로결정태도 모형.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531-544.
- 황지영, 고미나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4(2), 135-150.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1), 136-144.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ody, K. M. D., Bonnal, L., & Giret, J. F. (2014). Does student employment really impact academic achievement? The case of France. *Applied Economics*, 46(25), 3061-3073.
- Chope, R. C. (2001). Influence of the family i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17(2), 54-64.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Dong, X., & Simon, M. A. (2010). Gender variations in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risk of elder mistreatment in a Chinese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9(6), 720-739.
- Fetherston, M., Cherney, M. R., & Bunton, T. E. (2018). Uncertainty, technology use, and career preparation self-efficacy.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82(3), 276-295.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ouse, J. S. (1987). Social support and social structure. *Sociological Forum*, 2(1), 135-146.
- Hui, T., Yuen, M., & Chen, G. (2018). Career adaptabil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mong Hong Kong university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6(2), 94-106.
- Jeon, A. (2019).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undergraduates majoring in aviation tourism. *Service Business*, 13(4), 715-735.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zan, S., Fabio, A. D., Blustein, D. L., & Kenny, M. E. (2014).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work-related factors on the school engagement of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2), 345-354.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 255-311.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Noviati, N. P., & Nu'man, T. M. (2020). *The correlation of career Adap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msterdam: Atlantis Press.
- Phillips, S. D., Paziensa, N. J., & Walsh, D. J. (1984). Decision making styles and progress in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1), 96-105.
-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1), 41-52.
- Speich, R. T. (1987). A review of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8-23.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219-244.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Xia, T., Gu, H., Huang, Y., Zhu, Q., & Cheng, Y.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ocial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1. 1-7.
- 잡코리아 홈페이지, 4년제 대학 졸업까지 '평균 5년 1개월',  
[http://m.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4516&schCtgr=120001](http://m.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4516&schCtgr=120001) (검색일 : 2019. 10. 2)
- 잡코리아 홈페이지, 대학생 5명중 1명 '2학기 휴학할 것',  
[https://m.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810&schCtgr=120001](https://m.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810&schCtgr=120001) (검색일 : 2019. 10. 2)

## Abstract

###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Woo Hyeon A(ChungAng University)

Lee Hee Su(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student's four type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oreover,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etween the two main variables. In order to verify these question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462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four types of social suppor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hereas four types of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econdly,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ly, the mediated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ur type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development of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career.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to various types of support through active support in family, friend, professors and counseling centers. Finally, in order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ograms or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keywords:* university student,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